



금융위,

2011년도 소액보험 사업실적 발표

오병국 연구원

■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소액보험의 보장내용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11년 소액보험 사업을 수행하였음.

- 소액보험은 저소득층 아동 등 보험소외계층이 일정부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소금융중앙재단이 2008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된 것임.
- 2011년 소액보험사업은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보장내용을 강화하고, 지원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.
 - 저소득층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에 ‘실손의료비보장특약’을 추가하여 질병, 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를 충분히 보장함.
 - 장애인복지시설과 더불어 이용자의 대다수가 저소득층 아동인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소액보험 지원대상에 추가함.

■ 2011년 소액보험 사업을 수행한 결과, 장애인 복지시설 등 1,718 시설 및 13,227명에 대해 총 49.8억 원이 지원됨.

- 2011년 소액보험 사업에 총 12개의 보험사가 참여함.
 - 생보사: 삼성생명, 교보생명, 대한생명, 알리안츠생명, 신한생명
 - 손보사: 삼성화재, LIG손보, 한화손보, 동부화재, 현대해상, 메리츠화재, 롯데손보
- 2011년 소액보험 사업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, 지역아동센터 등에 총 49.8억 원이 지원됨.
 - 저소득층 아동 및 부양자: 11,034명, 42.7억 원
 - 장애인복지시설: 860개소, 5억 원
 - 지역아동센터: 858개소, 1.9억 원
 - 미소금융 소액대출자: 2,193명, 0.2억 원

■ 향후에도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신규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·발굴하기로 함.

- 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별 니즈를 파악하여 보장내용을 확대하고 적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계획임.

(금융위원회, 1/9)